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미 8월 소매 판매 1.2%로 예상보다 증가
- CNBC: 유가와 금리 등으로 미국 가구당 $1,700 부담

[미국 금융]
- CNBC: 미 연준, 고물가·고유가에 오늘 금리 인상 90% 가능성
- WSJ: 미 10년물 국채 금리 5% 돌파… 고금리 시대 되나?
- Bloomberg: 투자 분석가 Yardeni, 연말 S&P 500 지수 7,900으로 낮춰

[에너지]
- WSJ: 미 연준 오늘 발표 앞두고 유가 소폭 하락
- Bloomberg: 미 대선 승부처에서 디젤 가격 최고치… 농가·가계 '비상'

[주택]
- Bloomberg: 미 30년 모기지 금리 6.97%로 급등…1년 만에 최고
- CNBC: 금리 급등에 미 모기지 신청 전년 대비 19% 급감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TechCrunc: SK하이닉스, 인텔과 RAM 칩 생산공장 논의

[공급망 일일 브리핑]
- KMI 글로벌 해운 공급망 브리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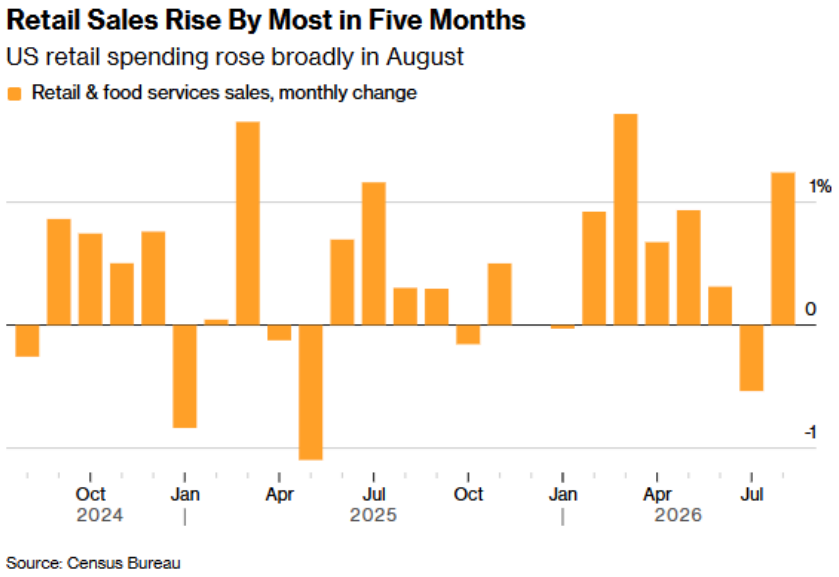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## [미국 경제]

**Bloomberg: US Retail Sales Rebound More Than Expected in Broad Advance**

**미 8월 소매 판매 1.2%로 예상보다 증가**

- 미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 상승 등 고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연방 센서스국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, 지난 8월 미국 소매판매 구매 액수는 전월 대비 1.2% 증가했다. 이는 최근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.
-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지출 확대로 반등을 보인 이번 소매판매 수치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수치다. 전문가는 미 가계의 소비 심리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분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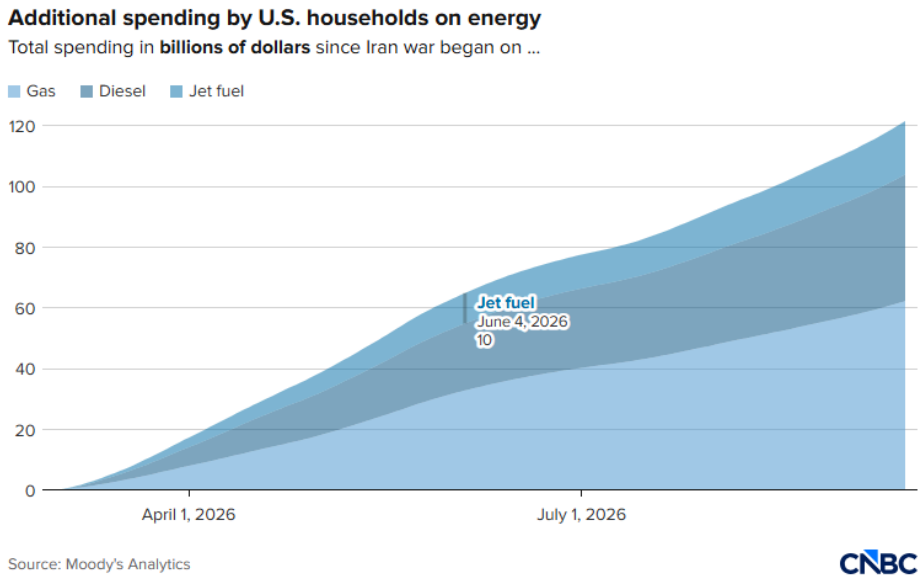



기사

**CNBC: Consumers hit by one-two punch of oil and rates from Iran war. The estimated bill is $1,700 per household**
**유가와 금리 등으로 미국 가구당 $1,700 부담**

- 미국 소비자들이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유가 급등과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'이중고'에 직면했다.

- 에너지 비용 상승만으로도 올해 세금 환급 증가 혜택이 모두 상쇄되었다.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미 가구당 평균 1,7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.
-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비자들이 지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축을 줄이고 신용에 의존하고 있으나,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. 물가 상승과 고금리 부담 장기화로 가계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.




기사

**[미국 금융]**

**CNBC: The Federal Reserve is expected to hike rates for the first time in three years**
**미 연준, 고물가·고유가에 오늘 금리 인상 90% 가능성**

- 연준이 끈질긴 인플레와 이란 전쟁 발 유가 급등과 견조한 고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.

- 월가 시장 참여자들은 오늘 수요일 기준금리가 0.25% 인상될 확률을 90% 이상으로 보고 있다.
- 한 달 전 36%와는 달리, 연준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인플레 우려가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 기류로 돌아섰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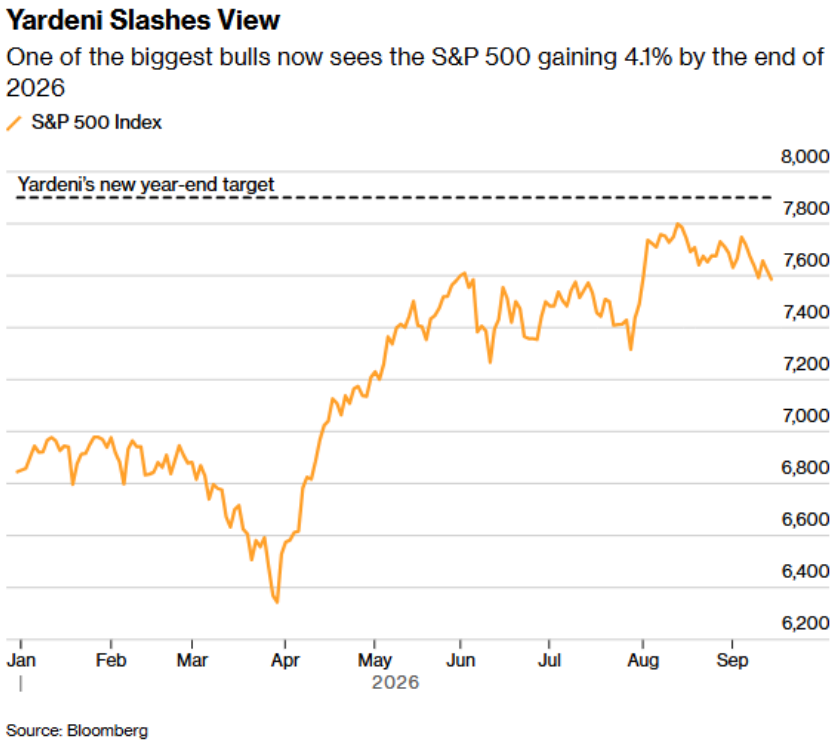
**WSJ: What Comes Next, Now that the 10-Year Treasury Yield Has Crossed 5%?**
**미 10년물 국채 금리 5% 돌파… 고금리 시대 되나?**

-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번 주 5%에 도달,1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.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고금리 시대에 진입한 것인지를 두고 주시하고 있다.
- 최근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주요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.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인플레 우려를 다시 자극하며 금리 상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.
- 한편 연방재무부의 국채 매입(바이백) 프로그램 확대 조치가 오히려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자극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.

기사

**Bloomberg: Stocks Bull Yardeni Cuts S&P500 View to 7,900 on Downturn Risks**
**투자 분석가 Yardeni, 연말 S&P 500 지수 7,900으로 낮춰**

1. 투자 기관 Yardeni Research의 Ed Yardeni 대표가 향후 3~6개월 내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졌다며, 올해 말 S&P 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 8,400에서 7,900으로 하향 조정했다.
2. Yardeni 대표는 S&P 500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(Forward P/E) 예상치를 19.8배에서 18.6배로 낮추며 목표주가를 내렸다.
3. 다만 2020년대 말까지 리세션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. 이에 따라 2020년대 말 S&P 500 목표주가 10,000도 그대로 유지했다.




기사

**[에너지]**

**WSJ: Oil Prices Edge Lower Ahead of Fed Decision**
**미 연준 오늘 발표 앞두고 유가 소폭 하락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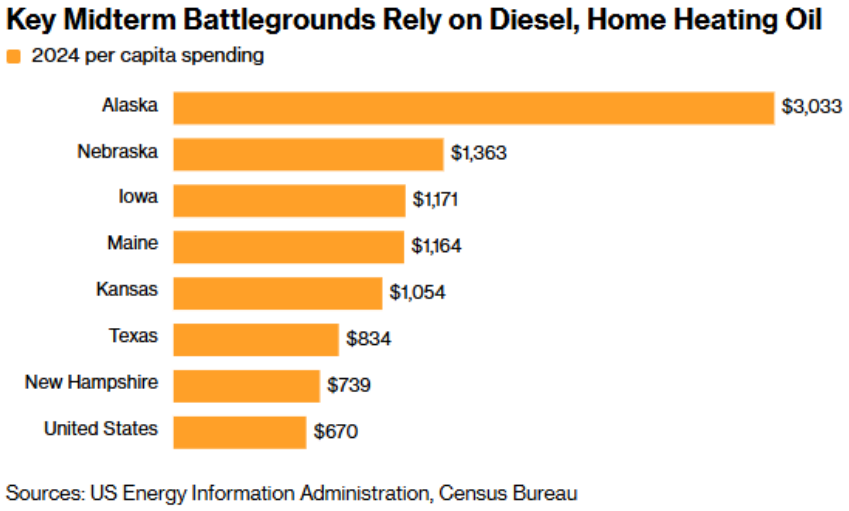
-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강달러 움직임과 국채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다.
- 브렌트유는 배럴당 1.3% 내린 107.34달러, 서부텍사스산원유는 2.3% 하락한 103.42달러를 기록했다. 중동에서 사우디가 피격으로 가동이 중단된 동서 파이프라인 대신 페르시아만 터미널로 원유 수송 경로를 변경하는 등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.

- 한편 S&P 글로벌 에너지는 고유가로 인한 소비 위축 여파로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전년 대비 하루 평균 약 24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.

기사

**Bloomberg: Record Diesel Prices Hit at Worst Time in Key Battleground States**
**미 대선 승부처에서 디젤 가격 최고치… 농가·가계 '비상'**

- 추수기 농가와 겨울철 난방유 구매를 앞둔 가계가 디젤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. 이는 올해 중간 선거 대선 핵심 경합주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.
- 예컨대 아이오와주에서 농장들을 운영하는 농가들은 이란전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구매를 미뤄왔으나, 수확기가 다가오며 고유가 속 구매를 강요받는 어려움에 쳐해있다는 것.
- 2024년 트럼프 지지자였던 한 농가는 "이번 유가 사태로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얼마나 친농민적인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말했다.




기사

## [주택]

**Bloomberg: US Mortgage Rates Rise to 6.97%, Highest In More Than a Year**
**미 30년 모기지 금리 6.97%로 급등…1년 만에 최고**

- 미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 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침체된 주택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.
- 미 모기지은행협회(MBA)가 오늘 수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9월 11일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전주 대비 0.12% 오른 6.97%를 기록하며 2025년 5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.
- 모기지 금리는 이란전 발발 직전인 2월만 해도 2022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나,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시작한 인플레 우려로 크게 오름세를 보인다.

기사

**CNBC: Mortgage demand from homebuyers drops 19% from a year ago, as interest rates surge abruptly higher**
**금리 급등에 미 모기지 신청 전년 대비 19% 급감**

- 미 모기지 금리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대출 신청이 전년 대비 19% 크게 떨어졌다.
-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.97%를 기록했으나, 최근 7.22%까지 추가 급등했다. 이에 따라 주택 구매용 모기지 신청은 전주 대비 1%, 전년 동기 대비 19% 줄었다.
- 주택 재융자 신청 역시 전주 대비 9% 감소했으며,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5%나 폭락하며 주택 금융 시장의 냉각세를 보이고 있다.

기사

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**TechCrunch: SK Hynix reportedly in talks with Intel to build memory chips in US**

**SK하이닉스, 인텔과 RAM 칩 생산공장 논의**

-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 RAM 칩 생산을 위해 인텔과 협의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.
- 양사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오하이오 신규 공장을 임대해 칩을 생산하는 방안과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법인(JV) 설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
- 다만 SK하이닉스 측은 성명을 통해 "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구체적 계획은 없다"라며 해당 보도들을 일축했다.

기사

**[글로벌 해운 브리핑]**

- 후티 반군이 바브 엘-만데브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며 사우디내 메카에 첫 공습 경보가 발령되는 등 중동 안보 위기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. 유엔 안보리는 바브 엘-만데브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카타르는 호르무즈에 이어 바브 엘-만데브 항해까지 중단될 경우 '재앙적' 결과를 경고했다.
-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 폭발 사건이 발생해 이란 IRGC는 기뢰 충돌을 주장하고 미국 CENTCOM은 드론 공격이라고 반박하는 가운데, 미군은 이란 봉쇄로 상업선 103척이 항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.
- 미국산 원유의 아시아 수송 비용은 사상 최고치인 4,480만 달러를 기록했다[31]. 한국은 이란이 경고한 77척 선박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, 사우디 원유 우회로 차단으로 11월부터 원유 수급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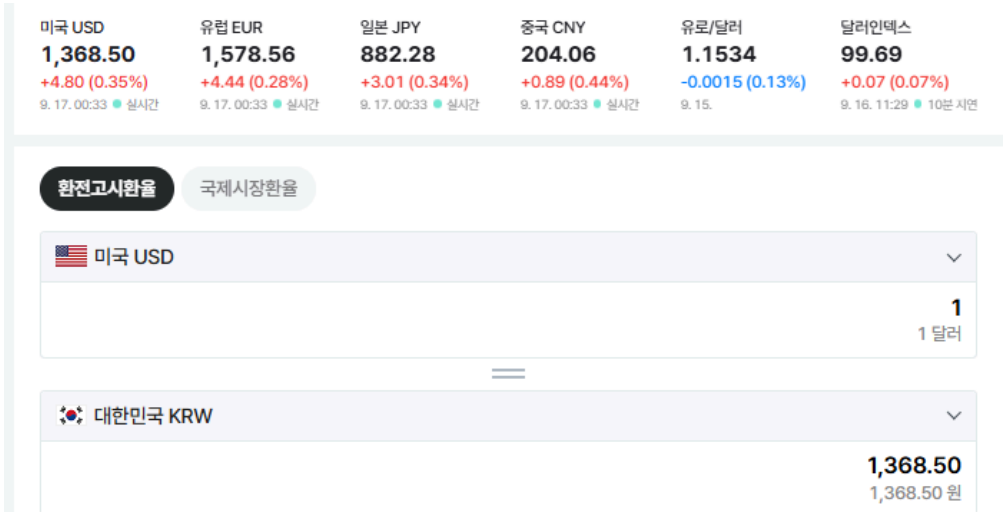
**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**


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**US 30** | 52,081.90 | -10.7 | -0.02% |
| **US 500** | 7,617.60 | +31.9 | +0.42% |
| **Dow Jones** | 52,056.70 | -36.41 | -0.07% |
| **S&P 500** | 7,614.45 | +28.77 | +0.38% |
| **Nasdaq** | 26,175.65 | +194.08 | +0.75% |
| **S&P 500 VIX** | 16.72 | -0.48 | -2.79% |
| **Dollar Index** | 99.403 | +0.062 | +0.06% |

## U.S. Treasurys

| | COUPON (%) | PRICE CHG | YIELD (%) | YIELD CHG |
|---|---|---|---|---|
| 30-Year Bond | 5.125 | 4/32 | 5.341 | -0.028 |
| 10-Year Note | 4.625 | 3/32 | 4.965 | -0.041 |
| 7-Year Note | 4.5 | 3/32 | 4.870 | -0.043 |
| 5-Year Note | 4.375 | 2/32 | 4.784 | -0.049 |
| 3-Year Note | 4.375 | 23/32 | 4.719 | -0.050 |
| 2-Year Note | 4.125 | 23/32 | 4.627 | -0.044 |
| 1-Year Bill | 0 | -1/32 | 4.327 | -0.038 |
| 6-Month Bill | 0 | 0/32 | 4.192 | 0.005 |
| 3-Month Bill | 0 | 0/32 | 4.045 | -0.011 |
| 1-Month Bill | 0 | 0/32 | 3.838 | -0.010 |
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